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메뚜기 재앙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이 남긴 모든 것들을 다 먹어 치우게 하여라."

13 그리하여 모세는 지팡이를 이집트 위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날 종일, 곧 밤낮으로 그 땅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동쪽 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왔습니다.

14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떼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15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까맣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남아 난 것이 없었습니다.

· 바로의 뉘우침과 변심

16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17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 달라고 기도하라."

18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9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20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3 묵상하기

바로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도 경고가 선포될 때는 아랑곳 없이 재앙으로 크게 혼쭐이 난 후에야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잘못했으니 재앙을 거둬 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고는 또 어김없이 눈앞의 재앙이 사라지자 마음이 강박해져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깁니다. 갈수록 자신과 백성에게 닥치는 재앙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이런 어리석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말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재앙을 없애 달라고 기도해달라”(17절)는 그의 말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자기와 상관없는 이방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온 세상과 자연 질서까지 다스리시는 능력을 몇 번이나 경험하고도 그분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바로에게는 더 큰 재앙이 기다릴 뿐입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의 능력을 몇 번이나 몸소 경험하고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 하나님'이라고 했던 바로처럼, 나도 아직 그분을 '부모님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아닌가요? 말씀에 무신경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서야 잘못했다 인정하고, 상황이 심각해져야만 하나님 찾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면, 이제 내 삶의 어긋난 패턴을 바로 고칠 때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딱 한 번만', '이번만', '마지막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최악된 습관이 있다면 이 패턴을 어떻게 끊을까요?
- ②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누군가의 하나님, 혹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나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도돌이표를 찍게 하는 최악된 삶의 패턴을 끊어 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5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까맣게 변해 버렸습니다.

그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라는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 치웠습니다.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나 풀 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남아 난 것이 없었습니다.

16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17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 달라고 기도하라."

18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9 그러자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홍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메뚜기는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20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므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 궁금 사전

* 지면: 땅바닥

* 홍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건넌 바다

• 말씀 씨앗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뚜기들이 온 이집트 땅에 가득했어요. 메뚜기들은 채소와 과일을 다 먹어 치워 버렸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의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고 재앙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없애 주셨어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교만해서 악한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주지 않았어요.

3 말씀 새씩

모세의 기도로 메뚜기 떼가 다 사라지자, 바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만화를 보며 생각해 보세요.



5 말씀 열매

내 잘못을 용서받기 전과 용서받은 후, 나의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래에 내 마음을 표정으로 표현해 보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바로는 한 번 더 용서를 구했지만, 메뚜기 재앙이 그친 후에 또 다시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보내 주지 않았어요.

6 기도하기

하나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